www.GungPlant.co.kr
시원하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진료하는
궁플란트치과의원
TEL. 02-722-2870 조계사 앞 사거리,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 앞

佛敎新聞

구독료 납부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자동이체 신청 및 문의 ☎ (02)730-4488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불기 2556년 6월 20일 (2012년 / 단기 4345년 음력 5월1일) i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825호 수

"세계평화 이룩하자"

WFB 한국대회 성료
청년지도자 양성 등
'대회 선언문' 도 발표

전 세계 불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의와 화합을 다지는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한국대회가 5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끝이 났다. WFB 한국대회 폐막식이 지난 15일 전남 여수 디오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WFB 30여 개국 지부 관계자와 신도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세계 각국 불교 지도자들은 세계와 종교 평화를 이룩하자는 'WFB 한국선언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종교간 대화와 문화 교류를 지속하기 위해 불교연대를 강화하고, 인간이 만든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해 생태환경 보호활동을 실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상생활에서 오계(五戒)를 지키고 참선을 생활화하자는 뜻을 강조했다.

또 불교의 유·무형 세계 유산의 역사적, 정신적 가치와 불교문화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국제적 기구들과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불교적 가치를 소개하자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세계 곳곳에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불교 청년 개발에 노력하자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폐회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아론 WFB 부회장의 대회답사, 대회기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WFB 한국대회 집행위원장 진옥스님에게 감사패도 전달했다. 앞서 12일 열린 WFB 총회에서 본부 상임집행이사 진월스님을 WFB 본부 부회장으로, 김의정 본부 부회장을 명예부회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여수에서 열린 WFB 한국대회는 학술포럼, 비즈니스 포럼, 세계고승수계대법회, 팔만대장경 공연, 창작 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관련기사 9면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불법사찰' 종단대책위 구성… '정부규탄' 한 목소리 2면

전 세계 불교인들의 축제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한국대회가 전남 여수에서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불교인들은 지속적으로 세계와 종교평화를 위해 불교 연대를 강화하자고 결의했다. 사진은 12일 대회 개회식을 앞두고 진행된 기념촬영.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전국 본말사, 종단쇄신 함께 한다" 교구본사주지協 '결의문' 발표

서울 봉은사 도선사 주요 사찰 이어 여성불자108인회 등 단체들도 성명 발표

불교사회정책연구소는 '불교희망' 자료집 발간 1차 쇄신계획 뒷받침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7일 발표한 제1차 종단 쇄신계획에 대한 각계의 지지와 동참이 잇따르고 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원행스님)는 종단 쇄신안의 실현을 위해 사부대중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결의문에서 "총무원장 스님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쇄신계획'이 종단과 한국불교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종정예하의 교시를 받들어 종단의 쇄신이라는 역사의 흐름에 전국본말사의 모든 사부대중과 함께 하고자 한다"고 서원했다.

특히 "종단은 이번에 발표한 1차 쇄신계획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중앙종무기관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쇄신계획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제2, 제3의 쇄신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 봉은사 사부대중도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봉은사(주지 진화스님)는 지난 8일 봉은사 사부대중 명의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차 쇄신계획을 지지하며 쇄신안의 실천에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성명을 발표, 종단 쇄신계획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봉은사는 "쇄신계획은 전통적인 승가공동체의 운영 원리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한다"며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개혁안을 담고 있어 한국불교의 대혁신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쇄신안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서울 도선사(주지 선묵스님) 역시 제1차 종단 쇄신안을 적극 지지하고 실천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도선사는 지난 14일 '조계종 제1차 종단 쇄신 계획을 지지하며 적극 동참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부대중의 공의를 통한 종단 운영, 산중공의 복원, 승단의 청정성 회복 등을 목표로 설정한 쇄신 계획은 전통적인 승가공동체의 운영 원리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의미를 밝혔다.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 108인회'도 지난 13일 '종단 쇄신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불교 바르게 믿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108인회는 "(쇄신안에) 경제적 관리업무는 재가전문종무원이 담당함으로써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그러나 "쇄신안이 실제 집행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일정과 방법이 제시된 세부 실행계획이 함께 있어야 한다"며 "조속히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해줄 것"을 촉구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소장 법응스님) 또한 '한국불교, 희망이 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미래를 지향하면서 종단의 위상을 우뚝 서게 할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조계종은 모든 것을 사회와 국민과 불자에게로 회향한다는 유신의 자세로 모든 것을 정비하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섭 허정철 기자
어현경 엄태규 기자

"재정투명화 기준, 세밀하게 규정해야"

종단 1차 쇄신계획 '의미와 과제' 점검 본지 첫 좌담서 제기

종단의 재정 투명화가 실현되려면 대상과 기준이 세밀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본지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7일 발표한 종단 1차 쇄신계획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는 좌담회를 4회에 걸쳐 연속 보도한다.

첫 번째 순서는 쇄신안의 골자인 '재정투명성 확립.' 지난 14일 불교신문사 사장실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총무원 재무부장 일감스님,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장 성직스님, 류승무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종단의 사회적 위상과 종도로서의 정체성을 높이는 재정 투명화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종단 집행부가 신뢰를 얻으려면 분담금의 공정한 징수와 공익적인 집행이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불미스러웠던 현안과 관련해선 "언론에 의해 사실이 과장되고 왜곡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종단 내에 강력한 쇄신 여론을 형성했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한 반면교사"라고 동의했다. ▶관련기사 3면

다만 외부 회계감사 도입은 교단의 신성성을 침해할 수 있고, 자칫 종단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재가자의 재정관리 참여가 재정투명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을 만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호법부장서리
정안스님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서리에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본부장 정안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5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정안스님에게 호법부장 서리 임명장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 자리에서 "호법부는 산재해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빨리해 열심히 살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안스님은 현문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4년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76년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다. 중앙승가대 총무처장, 사무처장과 대운암 주지를 역임했으며 지난해 10월 전통불교문화원 본부장으로 임명됐다. 현재 승가학원 이사와 가평 아가타보원사 주지를 맡고 있다.

허정철 기자

종조 도의국사 다례 21일 조계사서 봉행

조계종 종조(宗祖) 도의국사(道義國師)의 업적을 기리고 정진을 서원하는 다례(茶禮)가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스님)은 오는 21일(음력 5월2일) 오전 11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 추모다례재'를 봉행한다.

이날 다례는 종조인 도의국사의 수행정신을 본받아 종단의 쇄신을 위해 사부대중이 다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도의국사는 9세기 신라에 최초로 선(禪)을 전하고 조계종의 원류인 가지산문(迦智山門)을 개창한 스님이다. 784년 당나라로 유학해 광부(廣府)의 보단사(寶壇寺)에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홍주 개원사에서 서당지장(西堂智藏) 선사의 불법을 이어받았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업장소멸 법륜대
서울전시회

일시 : 불기 2556(2012)년 6월 21일(목) ~ 27일(수) 오전
장소 : 서울 백악미술관(조계사 앞) 1층 / 전화 : (02)734-4205
문 의 : 덕유산청다항 (055)941-1083,010-4595-0017,010-3852-9500

법륜대 유래와 의미
양나라 때 선혜대사 부협 현풍으로부터 제작, 대정17년 고려 명종에 건립, 그리고 티베트 사원에서는 법륜대에 경전과 소원을 비는 글을 넣고 돌리면 소원을 이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업장소멸법륜대 세상을 바꿔!

1. 부처님 일천팔십 분이 별도의 공간 없이 수미단 양쪽으로 법륜대에 봉안됩니다.
2. 금강경(찬) 수천 수만 권을 복장할 수 있는 새로운 법탑이 디자인되어 법당이 더욱 장엄스럽습니다.
3. 이름과 사진이 함께 양면으로 볼 수 있는 특수 케이스가 제작되어 탈부착이 편리합니다.(특허출원)
4. LED의 에메랄드빛 연출로 화려한 반면에 전기요금이 저렴하고 안전합니다.(12V 전압)
5. 전생록(경전)을 참조한 의식임으로 더욱 신심을 북돋아 주고, 실제 경전으로 자신의 전생빚을 소멸합니다.

불교작품 건강을 사로잡다!
영원한 비색, 살아 숨쉬는 청자는 친환경 소재입니다.